

역사 배우고 자연을 걷고 '기록문화 나들이'로 특별한 여름방학

- 대통령기록관,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 달간 운영
- 다문화가정 등 배려 계층 청소년 대상 오전, 오후 및 종일 프로그램 실시
- 6월 22일(월) 10시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 문화 체험 기회가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026년 기록문화 나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1일(화)부터 8월 21일(금)까지 한 달간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6월 22일(월) 오전 10시부터 대통령기록관 공식 누리집(www.pa.go.kr)의 신청 메뉴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특히 참여 기관의 이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량 임차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나들이 코스는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6시) 또는 종일(10시~15시 30분) 중 하나를 기관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참여 학생들은 대통령기록전시관을 둘러보는 '대통령기록 탐방'과 자신만의 미래 다짐을 멋지게 담아내는 '나만의 휘호 만들기' 체험에 동참하게 된다. 아울러 종일 코스를 선택할 경우, 국립세종수목원 및 충북 소재 청남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하루 동안 역사적 지도력(리더십) 함양과 청정 자연 속 생태 체험을 동시에 즐기는 값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청소년 안전 최우선 확보, 폭염 대비 선제적 안전대책 가동

대통령기록관은 참여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해당 참여

인원을 25명 내외로 제한하고 1명 이상의 인솔자가 반드시 동반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현장 곳곳에 전문 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기록문화 체험 행사를 열었으며, 누적 3,300여 명이 참여하는 큰 호응을 얻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기록문화 나들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대통령기록물을 직접 보고 느끼며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기록의 중요성을 친근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조상민 (044-211-2200)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이철구 (044-211-2241)

